

〈취유부벽정기〉의 서사적 의미와 작가 의식

엄태식

숭실대학교 강사, 고전소설 전공

loveromance@naver.com

- I. 서론
- II. 〈취유부벽정기〉와 〈등목취유취경원기〉·〈감호야별기〉의 관련 양상
- III. 삽입시의 작품 내적 기능과 ‘덧없음’의 서사적 의미
- IV. 김시습의 관서 유람과 〈취유부벽정기〉
- V. 결론

I. 서론

지금까지의 『금오신화』 연구는 대개 작가 김시습의 생애 및 사상과의 관련성, 소설사적 의의 및 장르적 성격, 『전등신화』와의 관련성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가 매우 많아서 이제 선행 연구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의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¹⁾ 『금오신화』를 총괄적으로 다룬 논의에다가 개별 작품론 및 여타 주제 논문에서의 단편적인 언급들까지 포함하면, 『금오신화』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족히 수백 편에 이를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그간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점들을 천착하는 한편, 보다 정밀한 독해로써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금오신화』 연구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관련 양상이다. 이는 일찍이 김안로(金安老)가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에서 『금오신화』가 『전등신화』를 본떴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래로²⁾, 현대의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주목되어온 문제이다.³⁾ 초기 연구자들은 두 작품의 모티프나 구절 등의 영향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결국 『금오신화』의 ‘독창성 여부’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오신화』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
- 1) 『금오신화』 연구서는 이석래,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의 모방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김평순, 「금오신화의 연구사적 검토와 쟁점」, 『어문논총』 33(경북어문학회, 1999); 소인호, 「금오신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고소설연구』(월인, 2002) 등에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유부벽정기〉의 연구서는 특히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4(한국고소설학회, 2002), 6-9쪽;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삽입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421-424쪽에서 상세히 다루어졌다.
 - 2) 入金鰲山 著書藏石室曰 後世必有知峇者 其書大抵述異寓意 効剪燈新話等作也.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1(태학사, 2001), 177쪽.
 - 3) 최남선, 「금오신화해제」, 『계명』 19(계명구락부, 1927);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학예사, 1939); 박성의,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본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문리논집』 3(고려대학교, 1958);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 연구』(신아사, 1965); 한영환,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구성비교연구』(개문사, 1975); 이상익,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삼영사, 1983); 박일용,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에 나타난 애정 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동아시아문학 속에서의 한국한문소설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정환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지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 22(한국고전문학회, 2002); 정환국, 「전란 소재 애정전기소설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시론」, 『초기 소설사의 형성 과정과 그 저변』(소명출판, 2005);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 38(국제어문학회, 2006).

전기소설의 장르관습 속에서 『금오신화』를 살펴본 경우도 있었지만⁴⁾, 연구자들은 『금오신화』 연구에서 『전등신화』를 배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금오신화』의 창작에 끼친 『전등신화』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 연구의 방향은 『전등신화』와의 정밀한 대비를 통해 『금오신화』를 재해석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본고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 있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작품 가운데 〈취유부벽정기〉는 그 연구 성과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지만, 연구자들의 견해차가 큰 작품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취유부벽정기〉가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 같은 애정전기 소설에 비해 서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데 있지 않은가 한다. 또한 〈취유부벽정기〉는 〈용궁부연록〉만큼 시문이 중심인 작품도 아니며 〈남염부주지〉처럼 의론이 중심인 작품도 아니므로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취유부벽정기〉는 『전등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등목취유취경원기〉와 〈감호야범기〉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취유부벽정기〉의 비교문학적 연구는 대체로 이 작품들 사이의 동이(同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근래 이루어진 박일용의 연구는 〈취유부벽정기〉가 〈등목취유취경원기〉와 〈감호야범기〉를 창의적으로 교합하는 과정을 논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끌어올렸다.⁵⁾ 본고 역시 박일용의 논문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필자의 〈취유부벽정기〉 이해는 선학의 그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취유부벽정기〉와 〈등목취유취경원기〉·〈감호야범기〉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작품의 서사적 의미와 작가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에서는 조선간본 『금오신화』를 대본으로 한다.⁶⁾

4) 박희병, 「전기소설의 장르관습과 금오신화」, 『한국전기소설의 미학』(돌베개, 1997).
 5)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4(한국고소설학회, 2002).
 6) 본고에서 인용하는 『금오신화』는 최용철 편, 『금오신화의 판본』(국학자료원, 2003)에 수록된 조선간본 『금오신화』이고, 『전등신화』는 정용수 역주, 『전등신화구해 역주』(푸른사상, 2003) 부록의 규장각본 『전등신화구해』이다. 이하 작품 인용 시에는 원문 뒤에 작품명과 이 책들의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작품의 번역은 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홍익출판사, 2000)를 참조하였다.

II. 〈취유부벽정기〉와 〈등목취유취경원기〉·〈감호야범기〉의 관련 양상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유부벽정기〉는 『전등신화』에 수록된 〈등목취유취경원기〉·〈감호야범기〉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라는 제목은 ‘등목취유취경원기(藤穆醉遊聚景園記)’라는 제목과 같다. ‘홍생취유부벽정기(洪生醉遊浮碧亭記)’라고 하면 『금오신화』 소재 다른 작품들의 제목과 자수(字數)가 많이 달라지기에 주인공의 이름을 뺄 것이다. 그런데 〈취유부벽정기〉의 서사 전개는 〈등목취유취경원기〉보다는 〈감호야범기〉와 더 유사하다. 〈취유부벽정기〉에서 홍생이 부벽정에서 기씨를 만나는 대목까지는 〈등목취유취경원기〉에서 등목이 위방화를 만나는 대목과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홍생이 기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시를 수창하는 장면은 〈감호야범기〉에서 성영언이 직녀를 만나는 장면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요컨대 〈취유부벽정기〉는 그 제목과 만남 장면까지는 〈등목취유취경원기〉의 그것을, 만남 이후의 서사 전개는 〈감호야범기〉의 그것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취유부벽정기〉의 구성 방식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이 작품을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에 비해 서사를 빈약하게 만드는 한편, 〈남염부주지〉나 〈용궁부연록〉에 비해 의론이나 시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하여 〈등목취유취경원기〉와 〈감호야범기〉의 구성적 특징을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기소설을 이해하는 데 삽입 문예 양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⁷⁾ 명확히 가를 수는 없지만 전기소설은 서사가 중요한 작품과 삽입 문예 양식이나 의론이 중요한 작품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니, 〈등목취유취경원기〉는 전자이고 〈감호야범기〉는 후자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지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으나, 필자는 〈감호야범기〉가 희작적(戲作的)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감호야범기〉에서 직녀는 성영언에게 세상에 떠도는 견우·직녀 이야기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는 그에게

7) 민병수, 「한문소설의 삽입시에 대하여」, 『한국고전산문연구』(동화문화사, 1981); 박희병, 「전기소설의 문체」, 『한국전기소설의 미학』(돌베개, 1997).

세상에 나가 시비를 밝혀달라고 청한다. 그런데 다시 속세로 돌아온 성영언의 행동은 직녀의 부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의 그것인바, 이는 <감호야뱀기>의 창작 목적이 직녀의 정절 의식 같은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즉 <감호야뱀기>의 작자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직녀를 여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녀의 입을 통해 애정 고사들을 나열함으로써 자신의 식견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취유부벽정기> 역시 <감호야뱀기>와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회작으로까지 볼 수는 없더라도 서사보다는 시가 중심인 작품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그간의 <취유부벽정기> 연구는 삽입시와 서사의 관련성 및 부벽정의 공간적 의미 파악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⁸⁾, 이 점에서 필자는 선행 연구가 대체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취유부벽정기> 연구의 중요한 과제는 오히려 작품의 서사적 의미를 밝히는 일일 수 있다고 본다.

윤재민은 전기소설을 ‘애정류(愛情類)’와 ‘지우류(知遇類)’로 구분한 바 있는데⁹⁾, 이에 따르면 <등목취유취경원기>는 전자이고 <감호야뱀기>는 후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취유부벽정기>는 어디에 속할까? 애정류 전기소설에서 남주인공은 대개 여주인공과 혼전 성관계를 갖는다. 이에 애정류 작품에서의 갈등은 ‘야합’과 ‘규범’의 충돌에서 비롯되고, 갈등의 해소 여부에 따라 결말의 방식이 갈린다. 한편 지우류 전기소설에서는 남주인공이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진입하여 현실에서는 발휘하지 못했던 재주를 펼쳐 보인다. 때문에 지우류에서는 주인공의 문재나 사상을 드러내는 삽입 문예 양식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취유부벽정기>는 기본적으로 지우류 전기소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8) 윤호진, 「취유부벽정기의 공간구조와 작가의식」, 『중국어문학』 18(영남중국어문화회, 1990); 이승수, 「한국문학의 공간 탐색 1 평양-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와 이태준의 패강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3(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삽입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전성운, 「취유부벽정기의 공간성과 서사 전개」, 『우리어문연구』 34(우리어문학회, 2009);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문복희,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난 김시습의 시세계」, 『인문과학연구』 27(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9) 윤재민, 「조선 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화사연구』 15(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17-22쪽; 윤재민, 「한국한문소설의 유형론」, 『민족문화연구』 3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51-154쪽.

그런데 김시습은 <취유부벽정기>를 창작하면서 『전등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애정류와 지우류 작품을 하나씩 끌어들이며 변용하였다. 필자는 바로 이 점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취유부벽정기>와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서두를 보자.

평양은 고조선의 수도이다. 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기자를 방문하니, 기자는 홍범구주의 법을 진술하였다. 무왕은 이 땅에 기자를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 그곳의 명승지인 금수산·봉황대·능라도·기린굴·초전석·추남허는 다 고적이며, 영명사·부벽정도 그중 하나다. 영명사는 동명왕의 구재궁으로 성곽 바깥 동북쪽 20리 되는 곳에 있는데, 긴 강을 굽어보고 평원을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참으로 승경이다. 화려한 배와 상선들이 저물녘에 대동문 밖 버들 숲 물가에 정박하는데, 그곳에 머무르면 반드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이곳에서 마음껏 구경하고 실컷 즐기다 돌아갔다. 부벽정의 남쪽에는 돌을 다듬은 층계가 있어 왼쪽은 청운루라 하고 오른쪽은 백운제라 한다. 돌에다 새겨 화표주를 세워놓았기에 호사가들이 완상하는 곳이 되었다. 친선 초년, 승경에 부잣집 홍생이 있었는데, 나이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풍모가 있는 데다가 글도 잘 지었다. 마침 추석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배를 가지고 가서 실을 사려고抱布買絲 나루터에 배를 대었다. 그랬더니 성중의 유명한 창기들이 성문에 나와 그에게 눈길을 보냈다. 성중에서는 친구 이생이 잔치를 벌여 위로하였다. 홍생은 잔뜩 술에 취하여 배로 돌아왔는데, 밤기운이 서늘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장계의 <풍교야박> 시가 생각나 맑은 흥을 이기지 못해 작은 배를 타고 달빛을 받으며 노를 두드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흥이 다하면 돌아오리라 생각하다 이른 곳이 바로 부벽정 아래였다.¹⁰⁾

연우 초년, 영가의 등생은 이름이 목이었는데, 나이는 26세였다. 풍모가 아름답고 시를 잘 읊었으므로 문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그는 평소에 임안의 산수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한번 그곳에서 노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갑인년, 과거가 부흥하자 드디어 향서로 추천을 받아 갔다. 그곳[임안]에 이르러 용금문 밖에 부쳐 살면서, 남북의 두 산 및 서호 거의 여러 절들, 곧 영은사·천축사·정자사·보석사 등으로부터 옥천·호포천·천룡봉·영취봉·석옥동·냉천정에 이르기까지 왕래하지 않는

10) 平壤 古朝鮮國也 周武王克商 訪箕子 陳洪範九疇之法 武王封于此地而不臣也 其勝地則錦繡山鳳凰臺綾羅島騏驎窟朝天石楸南墟 皆古跡 而永明寺浮碧亭 其一也 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也 在郭外東北廿里 俯瞰長江 遠矚平原 一望無際 眞勝境也 畫舸商舶 晚泊于大同門外之柳磯 留則必泝流而上 縱觀于此 極歡而旋 亭之南 有鍊石層梯 左曰青雲梯 右曰白雲梯 刻之于石 立華柱 以爲好事者玩 天順初 松京有富室洪生 年少美姿容 有風度 又善屬文 值仲秋望 與同伴 抱布買絲于箕城 泊舟巖岸 城中名娼 皆出闌閣 而目成焉 城中有故友李生 設宴以慰 生酣醉回舟 夜涼無寐 忽憶張繼楓橋夜泊之詩 不勝清興 乘小艇 載月打槳而上 期興盡而返 至則浮碧亭下也(〈취유부벽정기〉, 50-51쪽).

날이 없었으며, 그윽한 골짜기와 깊은 수풀, 낭떠러지와 절벽에 발자취가 거의 다 이르렀다. 등생은 7월 보름에 국원에서 연꽃을 감상하다가 서호에서 목계 되어 뇌봉탑 아래에 배를 댔다. 이날 밤, 달빛은 대낮 같고 연꽃 향기는 온몸에 퍼지는데, 큰 물고기가 물결 사이에서 뛰어오르고 자던 새들이 언덕 가로 날아오르며 우는 소리가 때때로 들려왔다. 등생은 이미 술에 잔뜩 취해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옷을 걸치고 일어나 독을 돌며 경치를 구경했는데 발걸음이 취경원에 이르자 발길이 가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다.¹¹⁾

〈취유부벽정기〉의 서두는 평양의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이를 지리서의 공식적 어투 혹은 산수기 창작의 전통과 연결시켜 이해한 관점도 있지만¹²⁾, 사실 이 부분은 항주(杭州)의 명승지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는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서두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서두는 남주인공 등목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등목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임안(臨安, 항주)으로 갔다가 용금문(湧金門) 밖에 머무르며 근처의 명승지를 유람하는데,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취경원에 이르고 그곳에서 가귀비(賈貴妃)의 궁녀였던 여주인공 위방화(衛芳華)를 만난다. 이에 반해 〈취유부벽정기〉의 서두는 남주인공 홍생에 대한 묘사가 아닌, 기사(箕子)의 동래(東來) 이야기 및 고구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유적지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며, 남주인공 홍생은 평양에 대한 묘사가 다 끝난 후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무의미한 순서 교체가 아니다. 『금오신화』 다섯 편 가운데 주인공에 대한 서술로 시작되는 작품은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남염부주지〉이고, 경치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는 작품은 〈취유부벽정기〉·〈용궁부연록〉이다. 〈용궁부연록〉은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과 〈용당영회록〉을 조합한 작품인데, 〈용궁부연록〉의 서두는 오강

11) 延祐初 永嘉陸生名穆 年二十六 美風調 善吟咏 爲衆所推許 素聞臨安山水之勝 思一遊焉 甲寅歲 科舉之詔興 遂以鄉書赴薦 至則僑居湧金門外 無日不住來於南北兩山 及湖上諸刹靈隱天竺淨慈寶石之類 以至玉泉虎跑天龍靈鷲石室之洞冷泉之亭 幽澗深林 懸崖絕壁 足跡殆將徧焉 七月之望 於麴院賞蓮 因而宿湖 泊舟雷峯塔下 是夜 月色如晝 荷香滿身 時聞大魚跳躑於波間 宿鳥飛鳴於岸際 生已大醉 寢不能寐 披衣而起 遠堤觀望 行至聚景園 信步而入(〈등목취유취경원기〉, 上 100-102쪽).

12) 신재홍, 「금오신화와 기제기이의 전기적 성격」, 『한국몽유소설연구』(계명문화사, 1994), 255쪽; 박희병, 「금오신화 창작의 연원과 배경」, 『한국전기소설의 미학』(돌베개, 1997), 181-183쪽.

(吳江)의 용왕당(龍王堂)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는 <용당영회록>의 서두를 참조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작자 김시습의 어떤 의도가 개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취유부벽정기>의 서두는 분명히 <등목취유취경원기>의 그것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유부벽정기>와는 다르게 시작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평양은 전통적으로 '고도(古都)'와 '기도(妓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¹³⁾ <취유부벽정기>의 서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홍생이 평양에서 한 일이 전자가 아닌 후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취유부벽정기>의 서두가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서두와 다르게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다시 말해 <등목취유취경원기>의 등목은 임안의 역사적 명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들을 유람하는 데 반해 <취유부벽정기>의 홍생은 평양의 유적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곳을 색향(色鄕)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두 작품 서두의 기술 순서는 남주인공이 명승지를 유람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김시습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서두를 변용하여 <취유부벽정기>의 서두를 평양의 경치와 유적지에 대한 묘사로 시작했던 것이다.

등목은 원나라 연우(延祐, 1314-1320) 연간의 사람인데, 그가 임안의 명승지를 유람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곳의 승경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하지만 등목의 발걸음이 취경원으로 향한 이유는 결국 멸망한 지 40년이 지난 전조(前朝) 송나라에 대한 서리지탄(黍離之歎)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같은 회고 의식이 위방화와의 만남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한편 홍생은 천순(天順, 1457-1464) 초년의 사람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홍생이 역사와 현실에 '무관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홍생의 본래적인 면모인지 혹은 의도적인 회피인지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취유부벽정기>의 서두 구성 방식이 결국 홍생의 그 같은 무관심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선행

13) 심경호,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학」, 『한국고전연구』 24(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탁원정, 「고소설 속 관서·관북 지역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4(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14) 時宋亡已四十年 園中臺館 如會芳殿清輝閣翠光亭 皆已頽毀 惟瑤津西軒巍然獨存 生至軒下 凭欄少憩 俄見有一美人先行 一侍女隨之 自外而入 風鬢霧鬢 綽約多姿 望之殆若神仙 生於軒下 屏息以觀其所爲 美人言曰 湖山如故 風景不殊 但時移世換 令人有黍離之悲 尔(『등목취유취경원기』, 上 102-103쪽).

연구에서는 대개 이와 같은 작품 서두의 의미를 간과하고 홍생이 마치 애초부터 기씨와의 만남을 꿈꾸었던 것처럼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홍생은,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처럼 애초부터 결핍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으며, 부잣집 자제로서 기녀와의 유희(抱布貿絲)이나 즐기면서 역사와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인물이었다.¹⁵⁾

〈등목취유취경원기〉에서 등목이 위방화를 만난 곳은 취경원이다. 취경원은 송(宋) 이종(理宗)의 비(妃)인 가귀비가 묻혀 있는 연복사(演福寺) 옆에 위치한 곳이며, 위방화는 가귀비의 시녀이다. 때문에 등목과 위방화의 만남은, 등목의 전조에 대한 회고 의식과 이민족이 세운 원(元)나라에 대한 거부감 및 한족(漢族) 중심의 정통 왕조에 대한 회고와 어느 정도 연관 지을 수 있다. 한편 〈취유부벽정기〉에서 홍생이 기씨를 만난 곳은 부벽정이다. 부벽정은 기사묘(箕子墓) 근처에 있는 곳이며, 기씨는 기자의 후손이다. 때문에 홍생과 기씨의 만남은 홍생의 전조(고려)에 대한 회고 의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¹⁶⁾ 요컨대 〈등목취유취경원

15) 임형택, 「김시습의 사상체계와 금오신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1), 40-41쪽에서 “主人公 洪生은 開城商人인데 豪男兒요 詩를 잘했다. 그는 商人이면서도 말하자면 훌륭한 文士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商業에 종사하는 점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은 그가 開城人이라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 王朝의 交替로 政治權力에서 疎外된 高麗의 遺臣들이 일부 ‘隱於商’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開城商人은 文化的인 傳統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도 선비로서 教養을 지닐 수 있었다고 보인다. 즉 洪生은 開城의 人 風土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洪生의 意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平壤으로 貿易하러 가서 배를 정박시키고 추석날 밤 흥을 따라서 浮碧亭에 올랐던 것이다”라고 한 이래로,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중앙출판, 1981), 129쪽; 문영오, 「금오신화에 굴절된 한의 고찰」, 『한국문학연구』 10(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7), 115쪽;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월인, 1999), 189쪽; 이대형, 『금오신화 연구』(보고사, 2003), 107쪽에서 홍생을 商人으로 보았다. 이는 〈취유부벽정기〉의 서두에 나오는 경치 묘사 가운데 “畫舸商舶 晚泊于大同門外之柳磯 留則必泝流而上 縱觀于此 極歡而旋”(〈취유부벽정기〉, 50쪽)라고 한 부분과 홍생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天順初 松京有富室洪生 年少美姿容 有風度 又善屬文 值仲秋望 與同伴 抱布貿絲于箕城 泊舟鐵岸”(〈취유부벽정기〉, 50-51쪽)이라고 한 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별개의 서술이며, 더구나 ‘抱布貿絲’가 『詩經』 衛風 〈氓〉에 나오는 구절로 ‘여자를 유혹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심경호 역, 앞의 책, 154쪽에서 언급되었으므로, 홍생을 개성상인으로 보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6) 예컨대 임형택, 위의 논문, 40-41쪽에서는 홍생을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고려유민·개성상인으로 보았고,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작품론』(집문당, 1990), 19-22쪽에서는 홍생을 前朝인 고려에 대한 유한을 가진 인물로 보고 홍생과 기씨의 만남을 ‘단군왕검→기자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민족사 정통의 재확인으로 보면서, 이와 같은 김시습의 고려에 대한 회고 의식이 단종을 퇴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한 불만으로 축진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취유부벽정기〉의 시간적 배경은 고려에

기)에서는 연우 연간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취경원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면, <취유부벽정기>에서는 천순 초년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부벽정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홍생은 친구인 이생과 평양에서 질탕하게 논 뒤 술에 취해 배로 돌아왔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을 읊은 후 흥을 이기지 못해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부분은 <등목취유취경원기>에서 등목이 ‘술에 취해’ 취경원으로 걸어가는 장면과 <감호야범기>에서 성영언이 송지문(宋之間)의 <명하편(明河篇)>을 읊은 뒤 ‘배를 타고’ 직녀가 있는 곳(은하수)으로 가는 장면¹⁷⁾을 섞은 것이다. 즉 김시습은 ‘술’에 취한 등목의 정신 상태와 ‘시’를 읊은 뒤 ‘배’를 타고 가는 성영언의 형상을 조합한 것인데, 이 점 역시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취유부벽정기>에서 홍생과 기씨의 만남 이후 서시는 <감호야범기>에서 성영언이 직녀를 만나는 장면과 유사성이 더 크지만, 홍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씨를 만나는 것은 등목이 취중에 위방화를 만난 것과 같다. 그런데 <등목취유취경원기>와 <취유부벽정기>의 ‘취유(醉遊)’는 그 의미가 같지 않다. 등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취경원을 찾아가 위방화를 만나고, 그녀와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뒤 헤어진다. 때문에 <등목취유취경원기>에서의 ‘취유’는 단순히 등목이 술에 취해 취경원으로 가서 노닐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가리킬 뿐이다. 이에 반해 <취유부벽정기>의 ‘취유’에는 홍생이 술에 취해 부벽정으로 갔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다음은 홍생과 기씨가 헤어지는 장면이다.

기씨는 시를 다 쓰고는 붓을 던지고 허공으로 솟아올라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가려 할 때 시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

대한 회고의 감회를 느낄 수 있는 시기라기보다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이 죽은 때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문범두, 「취유부벽정기의 구조와 의미」, 『한국소설의 전개』(문창사, 1998), 79쪽에서 이해순의 논의를 비판하며 “고려의 도읍지 開城 출신인 홍생으로 하여금 고구려 옛터에서 망국한에 빠져들게 한 구성을 그렇게 해석할 소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매월당이 실혹 고려 패망에 대해 깊은 유감을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품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지는 않다. 작품배경이 된 평양은 오히려 그것이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遺墟일 때 작가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17) 乃扣船舷 歌宋之間明河之篇 飄飄然有遺世獨立 羽化登仙之意 舟忽自動 其行甚速 風水俱駛 一瞬千里 若有物引之者 令言莫測 須臾 至一處(〈감호야범기〉, 下 91쪽).

“천제의 명이 지엄하시므로 흰 난새를 타고 가려 하오. 맑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였으니 내 마음이 아프오.” 잠시 후 회오리바람이 땅을 말더니 생의 자리까지 불어와 시를 낚아채 갔는데, 역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기이한 이야기가 인간 세상에 전파되지 않게 하고자 하여 그랬던 것 같았다. 홍생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서 아득히 생각해보니,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였으며 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주의 깊게 생각하여 그 말들을 다 기억했다. 그리고 기이한 만남이었는데 두터운 정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지난 일을 추억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양대에서의 운우지정은 한바탕 꿈,
언제나 옥소의 가락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강 물결이 비록 무정하다 하나,
오열하듯 슬피 울며 이별의 물굽이를 흘러내려가네.¹⁸⁾

기씨와 헤어진 후 “홍생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났다(生惺然而立)”라고 하였다. ‘성연(惺然)’은 정신이 맑아졌다는 뜻이며, 문맥상 ‘醒’은 ‘醒’과도 같아 ‘술이 깬[酒醒]’인 동시에 ‘깨달아 앎[覺醒]’이기도 하다. 또 ‘성(惺: 醒)’은 ‘취(醉)’와는 대조적인 정신 상태를 의미하기에, ‘취’는 ‘술에 취함’인 동시에 ‘깨닫지 못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취’에서 ‘성’으로의 변화는 주인공 홍생의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홍생이 기씨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홍생과 기씨의 관계이다.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 기씨를 대하는 홍생의 태도는 연인을 향한 그것이고, 홍생은 기씨를 연모하다가 세상을 떠나므로, 그의 죽음은 연인을 향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취유부벽정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홍생은 놀라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집안사람들에게 명하여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히도록 하고는 향을 사르고 땅을 쓴 뒤에 뜰에다 자리를 깔게 하였다. 그런 후 턱을 괴고 잠깐 누웠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날이 곧 9월 보름이었다. 홍생은 초빈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신선을

18) 寫訖 擲筆凌空而逝 莫測所之 將歸使侍兒傳命曰 帝命有嚴 將驂白鸞 清話未盡 愴我中情 俄而回輿捲地 吹倒生座 掠詩而去 亦不知所之 蓋不使異話 傳播人間也 生惺然而立 藐爾而思 似夢非夢 似真非真 倚闌注想 盡記其語 因念奇遇 而未盡情欸 乃追懷以吟曰 雲雨陽臺一夢間 何年重見玉簫環 江波縱是無情物 嗚咽哀鳴下別灣(<취유부벽정기>, 64-65쪽).

만나 시혜한 것으로 여겼다.¹⁹⁾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운영전〉 같은 애정전기소설에서 남주인공이 세계를 버리는 이유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²⁰⁾ 애정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이 추구하는 가치는 오로지 애정의 성취에 놓여 있는바, 애정전기소설에서의 애정은 생의 다른 가치들까지 두루 포함하거나 대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남주인공의 죽음은 이승에서 못다 한 사랑을 저승에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유부벽정기〉에서의 홍생의 시해(尸解)도 다른 애정전기소설에서의 남주인공의 죽음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홍생과 기씨의 만남도 여타 애정전기소설 남녀 주인공의 그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²¹⁾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홍생과 기씨의 만남이 애정전기소설의 남녀의 만남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애정전기소설인 〈등목취유취경원기〉에서는 위방화가 먼저 서리 지탄을 하고 등목을 유혹하는 내용의 시를 읊은 후 등목이 이 모습을 보고 그녀의 시에 걸맞은 내용의 화답시를 짓는 데 반해, 〈취유부벽정기〉에서는 홍생이 먼저 맥수지탄(麥秀之歎)을 하고 평양의 유적지에 관한 시를 읊은 후 기씨가 나타나 그에 걸맞은 내용의 화답시를 짓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두 작품은 탄식의 주체, 시를 짓는 순서 등이 정반대로 되어 있는바, 이는 작자 김시습의 의도적인 변개로 볼 수 있다. 애정전기소설의 여주인공들은 대개 남주인공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면모를

19) 生驚覺 命家人 沐浴更衣 焚香掃地 鋪席于庭 支頤暫臥 奄然而逝 卽九月望日也 殯之數日 顏色不變 人以爲遇仙屍解云(〈취유부벽정기〉, 66쪽).

20) 〈만복사저포기〉의 결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임치균, 「용궁부연록의 환상 체험 연구」, 『정신문화연구』 124(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8-9쪽에서 논하였다.

21) 설중환, 『금오신화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160쪽에서 “여기서 女人을 연모한다는 것은 異性으로서의 여인이 아니라, 超越한 존재로서의 女人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는 《萬福寺桴桴記》의 梁生과 같이 女性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城中의 모든 기생을 차지할 수 있는 그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수성, 「취유부벽정기와 전등신화의 비교 연구」, 『논문집』 9(경기공업전문학교, 1976), 47쪽에서는 “이 追懷詩를 통하여 洪生은 仙娥와 情款을 다하지 못함을 嘆息하며 素朴한 人間의 戀情을 품어보고 있는 뜻이 生生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고, 신재홍,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 양상」, 『한국몽유소설연구』(계명문화사, 1994), 65쪽에서는 이 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나는 욕망의 성격은 처음에는 이념적인 성향이 내포된 허무 의식과 회고의 정이었다가 나중에는 정욕으로서의 욕망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보인다. 특히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위방화나 <만복사저포기>의 여인 같은 귀녀(鬼女)의 경우, 남주인공을 유혹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의 시문을 먼저 짓는 게 보통인데, 이는 결국 애정전기소설이 사랑받는 주인공의 양식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다.²²⁾ 그러나 <취유부벽정기>에서는 홍생과 기씨의 성애를 암시하는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기씨는 홍생에게 “나는 꽃과 달의 요정도 아니요 연보의 여인도 아닙니다 [我非花月之妖 步蓮之姝]²³⁾”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애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홍생 또한 기씨와 만났을 때에는 문사(文士)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때문에 홍생과 기씨의 관계는 등목과 위방화 같은 연인이 아니라 성영언과 직녀 같은 지음(知音)인 것이다.

다음으로 작품의 말미에서 홍생이 옥황상제에게 그 재주를 인정받아 하고(河鼓: 牽牛星)의 종사관으로 임명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말 방식은 애정류 전기소설의 그것이 아니라, <수문사인전(修文舍人傳)>·<남염부주지> 같은 지우류 전기소설의 그것이다. 다시 말해 홍생의 죽음은 기씨와의 재회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며, 그 자신의 문재(文才)에 대한 지우(知遇)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씨가 사후 향아(姮娥)의 시녀가 되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향아는 예(羿)가 서왕모에게 얻은 불사약을 훔쳐 먹고 달 속으로 달아났는데, 이 때문에 애정전기소설에서 전고로 인용되는 ‘향아’는 대개 독수공방(獨守空房)과 정절(貞節)의 상징이다. 만약 <취유부벽정기>의 기씨가 <감호야범기>에 등장하는 직녀의 시녀로 설정되었다면, 홍생의 죽음은 기씨에 대한 애정 성취의 욕망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유부벽정기>에서 기씨는 향아의 시녀가 되었기 때문에 홍생이 하고의 종사관이 되어 보았자 기씨를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²⁴⁾

마지막으로 홍생이 기씨를 연모하다가 병이 들어 정신이 나가지만, 꿈속에서 기씨의 시녀를 만난 뒤에 의연한 태도로 죽음(시해)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생의 꿈속에 나타난 여인이 기씨가 아니라 그녀의 ‘시녀’라는 점이다. 예컨대 <금봉차기>나 <만복사저포기>

22) 윤재민, 「전기소설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19(한국한문학회, 1996), 352-364쪽.

23) <취유부벽정기>, 55쪽.

24) 이대형, 앞의 책, 145-146쪽에서는 “기씨너는 천제에게 주달하였고, 천제는 그 재주를 아껴서 종사관이 되게 한다. 이로써 기씨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모두 초월계에 있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꿈에 나타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취유부벽정기>에서는 여주인공 기씨가 아닌, 그녀의 ‘시녀’가 남주인공의 꿈에 나타나는데, 이는 홍생과 기씨의 관계가 여타 애정전기소설 남녀 주인공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설정이며, 기씨가 결코 홍생에게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홍생은 기씨 시녀의 말을 통해 기씨와의 만남 및 애정 성취는 초월계에서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문재를 펼쳐 보이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홍생에게 있어서 기씨와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기녀와의 유희이나 즐기면서 역사와 현실에 무관심했던 그간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이 문사로서의 면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작품 속에서 ‘취’에서 ‘성’으로의 변화 및 ‘시해’라는 결말을 통해 상징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Ⅲ. 삽입시의 작품 내적 기능과 ‘덧없음’의 서사적 의미

지금까지 이루어진 <취유부벽정기> 연구는 그 시각과 논의 전개 방식은 다양했으나, 작품의 의미와 주제는 대개 김시습 당대의 문체와 관련된 우의로 기울었다. 이런 결론은 타당하며 필자 또한 이러한 논지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다만 본고에서는 작품의 서사와 작가 의식 간의 관련성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취유부벽정기>가 김시습 당대의 문체를 우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기씨가 홍생에게 한 다음의 말에 있다.

약질인 나는 은나라 왕의 후예요 기씨의 딸이요. 나의 선조께서는 이곳을 실봉(實封)으로 받으셨는데, 예악과 전형을 모두 탕 임금의 가르침을 따르고 팔조금법으로 백성을 가르쳐, 문물이 선명하고 화려한 게 천여 년이었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의 운명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재앙과 환란이 갑자기 닥쳐, 선친께서는 필부의 손에 패전하셨고 끝내 종사를 잃었다고요. 위만이 이때를 틈타 그 보위를 훔치니 조선의 왕업이 추락했지요. 약질인 나는 전전하다가 낭패를 당했지만 정절을 지키려고 죽음을 기다릴 따름이었소.²⁵⁾

이 부분이 김시습 당대의 사건을 우의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므로, 작품 말미에서 홍생이 세상을 떠난 까닭도 기씨가 세상을 떠난 이유와 동일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제는 <취유부벽정기>가 홍생의 깨달음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데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취유부벽정기>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등목취유취경원기>의 그것에 비해 긴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취유부벽정기>의 천순(세조 3년(1457)-세조10년(1464)) 초년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고조선의 수도평양라는 공간적 배경을 연결시켜줄 매개가 뚜렷하지 않기에, 이 소설이 김시습 당대의 문제를 우의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작품 속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는 <취유부벽정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오신화』 소재 여타 작품들도 김시습 당대의 문제 혹은 그 자신의 문제를 우의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분명해 보이지만, 『금오신화』 전편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구절을 발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취유부벽정기>의 시간적 배경인 천순 초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으므로²⁶⁾,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취유부벽정기>의 시간적 배경이 삼입시를 통해 공간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취유부벽정기>의 삼입시는 홍생이 읊은 시 6수, 기씨가 홍생의 시에 화답한 시 6수, 그리고 홍생의 청으로 기씨가 읊은 40운(韻) 배율(排律) <강정추야완월(江亭秋夜翫月)>인데²⁷⁾, 이 시들의 성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홍생의 시는 작품 서두에 묘사된 평양의 명승지를 읊은 것이다. 그리고 기씨의 화답시는 기본적으로 홍생의 그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시적 화자의 무상감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기씨가 마지막에 읊은 <강정추야완월>은 앞의 시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5) 弱質 殷王之裔 箕氏之女 我先祖 實封于此 禮樂典刑 悉遵湯訓 以八條教民 文物鮮華 千有餘年 一旦天步艱難 災患奄至 先考敗績匹夫之手 遂失宗社 衛瞞乘時 竊其寶位 而朝鮮之業墜矣 弱質顛蹶狼狽 欲守貞節 待死而已(<취유부벽정기>, 59쪽).

26) 설중환, 앞의 책, 154쪽.

27) <취유부벽정기>의 삼입시는 특히 박일용, 앞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본고에서 삼입시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고 이 논문으로 미룬다.

〈강정추아완월〉에서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비회(悲懷)와 선계로의 초월에 대한 지향성이 매우 강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앞서의 시들에서 보였던 바 ‘과거’의 ‘수도 평양’에 국한되었던 무상감이 ‘현재’의 이 ‘세계 전체’에 대한 그것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제34운까지 이어진 후 제35운에서는 “옛날을 조문하니 그저 눈물만 흐르고, 지금을 슬퍼하니 절로 근심만 이는구나[弔古多垂淚 傷今自買憂]²⁸⁾”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상이 집약·전환된다. 이에 대해 박일용은 “고조선의 유민으로서 화자가 옛날을 조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화자이지만 현실을 초월할 수 없는 홍생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근심을 사서 슬퍼한다는 것이다²⁹⁾”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은 기씨의 과거와 홍생의 현실이 동질적이라는 인식하에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³⁰⁾ 이처럼 〈강정추아완월〉은 영원의 세계인 선계로의 지향을 통해 선계와 대비되는 속세를 ‘덧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바³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덧없음’이 기씨의 과거와 홍생의 현재를 이어주면서 둘 사이에 동질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덧없음’이란 빨리 흐르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덧없음’을 대개 홍생이 고도 평양에서 느꼈던 맥수지탄 및 그의 초월 의지와 연관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선계라는 영원불멸의 세계로의 지향을 통해 유한하고 덧없는 속세에서의 시간 흐름이 무의미함을 보여줌으로써, 기씨와 홍생 사이에 놓인 시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덧없음’의 시상(詩想)으로 인한 시간성의 소거는 기씨의 저 말 속에 나오는 바 과거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과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을 동질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생에게 기씨와의 만남은, 그가 처한 현실이 기씨의 그것과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된 계기이자 고도에 대한 역사적식이 그가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는 각성의

28) 〈취유부벽정기〉, 64쪽.

29) 박일용, 앞의 논문, 455쪽.

30) 제35운에 나오는 ‘自買憂’는 김시습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買憂’를 검색해보면, 『매월당집』 제3권의 〈秋日即事〉와 제6권의 〈南山訪七休〉 두 곳에서만 ‘自買憂’라는 표현으로 검색된다.

31) 임형택, 앞의 논문, 42쪽에서 “箕氏女는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과 만남의 즐거움을 말하면서 영원한 세계인 仙界로의 同伴을 암시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취유부벽정기>는 <등목취유취경원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서사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즉 <취유부벽정기>는 전조에 대한 회고 의식을 촉발시키는 시공간을 설정한 <등목취유취경원기>와는 달리, ‘영원’의 세계와 대비되는 이 세상의 ‘덧없음’을 부각시켜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런 서사 기법은 <감호야범기>에서 암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감호야범기>에서 직녀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그녀를 원통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이야기들은 성영언이 직녀를 만난 은하수라는 초월계에서 초시간적(超時間的)으로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취유부벽정기>에서 기씨가 겪었던 일은 홍생이 살고 있는 현재에도 ‘되풀이’되면서 그녀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으며, 그 두 사건은 홍생이 기씨를 만난 부벽정이라는 초현실적 공간에서 초시간적으로 동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취유부벽정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항을 추출할 수 있다.

	부정적	긍정적
홍생	風流男兒	文士
기씨	戀人(性愛的 對象)	知音(超越的 存在)
평양	妓都	古都
역사	斷絶的(個別的)	連續的(反復的)

이를 부정적 가치와 긍정적 가치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취유부벽정기>에는 이처럼 시종일관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두 개의 대립적인 가치가 기저에 깔려 있으며, 이 둘은 서사가 종결될 때까지 줄곧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립적인 가치 사이의 갈등은 작자 김시습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홍생의 내면에서 벌어진 그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작품 말미에서 홍생이 현실을 버리고 초월계의 신선이 되는 것은 그간 몸담았던 부정적 가치를 떨쳐버리고 긍정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김시습의 관서 유람과 〈취유부벽정기〉

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 창작이 그의 관서(關西) 유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³²⁾ 『매월당집(梅月堂集)』 제9권에 실린 〈탕유관서록후지(宕遊關西錄後志)〉³³⁾에는 당시 김시습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후지는 천순(天順) 무인년(戊寅年), 곧 1458년(세조 4년)에 쓴 것으로, 〈취유부벽정기〉의 시간적 배경인 천순 초년과 같은 시기이다.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창작한 때는 1465년 이후이므로 그의 관서 유람으로부터 약 1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바, 이 점에서 〈취유부벽정기〉는 그의 관서 유람에 대한 추체험적(追體驗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시습은 관서·관동(關東)·호남(湖南)을 유람한 후 쓴 후지(後志)의 앞에 '탕유(宕遊)'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의 유람의 시발이 된 관서 기행을 '탕유'라 명명한 것과 〈취유부벽정기〉의 '취유'는 비슷한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매월당집』 제9권 '유관서록(遊關西錄)'에는 〈취유부벽정기〉 서두에 언급된 고적(古蹟)들에 대한 영사시(詠史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들은 〈취유부벽정기〉의 삼입시와 비슷한 정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탕유관서록후지〉에서 “패수의 물결을 건너, 기차 도읍의 정진·성곽의 옛터와 궁사·묘관의 웅장함, 인물의 변화함과 상마의 무성함을 보니, 은나라 종자의 여풍이 실추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涉溟水之波

32) 문범두, 앞의 논문, 81-86쪽; 박태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애정 모티프 연구」,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태학사, 1996), 234쪽; 이승수, 앞의 논문, 109쪽. 한편 김시습의 생애와 문학 전반에 관해서는 심경호, 『김시습 평전』(돌베개, 2003) 참조.

33) 余自少跌宕 不喜名利 不顧生業 唯以清貧守志爲懷 素欲放浪山水 遇景吟詠 嘗爲舉子朋友過以紙筆 復勸薦鶻 猶不干懷 一日 忽遇感慨之事 以謂男兒生斯世 道可行則潔身亂倫 恥也 如不可行 獨善其身 可也 欲泛泛於物外 仰慕圖南思邈之風 而國俗且無此事 猶豫未決 一夕 忽悟若染緇爲山人 則可以塞願 遂向松都 登眺故城 徘徊墟里 宮殿陵墓 鞠爲梧楸禾黍 寧不感乎 又登天摩 聖居諸山 以觀衆峯巒峭之狀 飄瀾湫瀑之雄 而入關西 登岳嶺之險 涉溟水之波 以觀箕都井田城郭之址 宮祠廟觀之壯 人物之繁華 桑麻之翁髻 可想殷之宗子餘風不墜矣 由是而遡薩水之涯 入安市之城 隋唐攻戰之跡 依稀然慘烈 使後之騷人墨客 徘徊踟躕 足以激千古之恨 又登香嶺 南望渤海島嶼之縹緲 北眺朔漠山河之險阻 坐巖扃 伴明月 或倚澗邊之石 或登巍峨之峯 見松樛參天 蔬菌狼藉 鳥獸之奇怪 草木之精華 皆使我欣然吟哦 或題樹葉 或書巖崖 還于蓬廬 脩然默坐 煮茗茹蔬 足以遣慮而忘情矣 若吾在宦途 欲窮此清翫 不可得也 而又不能自在遊戲矣 嗚呼 人生天壤之間 戚戚於利名 營營於生業 以困其身 如鷓鴣之戀茗 匏瓜之繫樹 豈不苦哉 是爲志以激俗士 時天順戊寅秋 山人清寒志(金時習, 『梅月堂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184-185쪽).

以觀箕都井田城郭之址 宮祠廟觀之壯 人物之繁華 桑麻之翳翳 可想殷之宗子餘風不墜矣”라고 언급한 것과 연결된다.

한편 김시습은 같은 글에서 “어느 날 문득 감개한 일을 만나매, 남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도가 행해질 수 있는데도 몸만 깨끗이 하여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은 치욕이지만, 만약 (도가) 행해질 수 없다면 홀로 그 몸만을 착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一日 忽遇感慨之事 以謂男兒生斯世 道可行則潔身亂倫 恥也 如不可行 獨善其身 可也”라고 하여 관서 유람이 어떤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潔身亂倫’과 ‘獨善其身’은 각각 『논어(論語)』 〈미자(微子)〉³⁴⁾와 『맹자(孟子)』 〈진심(盡心)〉 상(上)³⁵⁾에 나오는 말이다. 『논어』에서 자로는 공자의 뜻을 진술하면서³⁶⁾ 공자는 이미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인륜을 폐할 수 없기에 벼슬하는 것이니 이는 곧 의(義)를 행하는 것이라 하였고, 장인(丈人)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의 몸만 깨끗하게 하고 큰 인륜을 어지럽히는 일이라 하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도(道)가 행해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은 곧 ‘난륜’이 되기에, 이는 유자(儒者)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런데 김시습은 ‘(道)不可行’과 관련하여서는 『논어』가 아닌 『맹자』를 끌어와 ‘독선기신’하겠다고 하면서, 그 말 속에 담긴 바 ‘궁(窮)하여도 의(義)를 잃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였다.

공자가 처한 상황과 김시습이 처한 상황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음(道之不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已知之 벼슬을 한 까닭은 ‘군신지의(君臣之義)’를 폐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결국 도가 행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시습은 ‘道行·(道)不行’이라고 하지 않고 ‘道可行·(道)不可行’이라고 하였다. 즉 현재 도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앞으로 도가 행해질 가능성이 없음을 문제 삼은 것이니, 이는 결국 ‘군신지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로 볼 수도

34) 子路從而後 遇丈人以杖荷蓑 子路問曰 子見夫子乎 丈人曰 四體不勤 五穀不分 孰爲夫子 植其杖而芸 子路拱而立 止子路宿 殺鷄爲黍而食之 見其二子焉 明日子路行以告 子曰隱者也 使子路反見之 至則行矣 子路曰 不仕無義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而亂大倫 君子之仕也 行其義也 道之不行 已知之矣

35) 孟子謂宋句踐曰 子好遊乎 吾語子遊 人知之 亦器器 人不知 亦器器 曰何如斯可以器器矣 曰尊德樂義則可以器器矣 故士窮不失義 達不離道 窮不失義 故士得己焉 達不離道 故民不失望焉 古之人 得志澤加於民 不得志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36) 朱熹는 자로의 말에 대하여 “子路述夫子之意如此”라고 하였다.

있는 것이다. 김시습의 관서 유람은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김시습은 <탕유관서록후지>에서 자신의 유람이 유가적 이념이 붕괴된 세상을 ‘잊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했는데, 이러한 그의 정신 상태는 <취유부벽정기>의 서두에 나오는 바 역사와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홍생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탕유관서록후지(宕遊關西錄後志)’의 ‘탕(宕)’과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의 ‘취(醉)’는 각각 천순 초년이라는 ‘시간’에 기자의 도읍(평양)이라는 ‘공간’에 있는 김시습과 홍생의 정신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환언하면 ‘탕’이나 ‘취’의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같은 시공간 속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기씨가 현실을 초월한 이유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박일용은 “기씨녀가 이처럼 천명적 정통성을 얻지 못한 위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절의를 잃는 것으로서, 절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죽음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죽음을 기다리던 기씨녀가 신인의 도움을 받아 초월계로 진입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³⁷⁾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작품 말미에 나오는 홍생의 시해(초월)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생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이 죽임을 당한 천순 초년의 조선에서 산다는 것 자체를 획절로 인식했기에, 기씨가 현실을 초월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시해)으로 현실을 떠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홍생의 각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성이 소거된 부벽정이라는 초현실적 공간에서의 ‘동질성’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김시습의 관서 유람은 ‘감개한 일이 벌어진 현실을 잊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가 발을 딛고 있었던 관서 지방 역시 찬위(篡位)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기에, 관서 유람으로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고도 평양과 그곳의 유적지들은 그로 하여금 역사를 통해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취유부벽정기>는 이와 같은 관서 유람의 추체험적 성격을 가진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금오신화』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절의’이며, 특히 <이생규장전>이 이 문제를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37)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4(한국고소설학회, 2002), 23쪽.

있다고 논해왔는데³⁸⁾, 본고에 따르면 〈취유부벽정기〉 역시 절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시습은 〈취유부벽정기〉를 통해 “천순 초년의 조선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 “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취유부벽정기〉는 현실에서 벗어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는 절의를 지키지 못한 김시습의 고뇌를 표현한 작품이다.

V. 결론

본고는 〈취유부벽정기〉의 서사적 의미와 작가 의식에 대하여 살펴본 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유부벽정기〉의 주인공 홍생은, 평양에서 기녀들과의 유희를 즐길 때에는 역사와 현실에 무관심한 풍류남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부벽정에서 기씨와 만났을 때에는 문사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유부벽정기〉가 애정류 전기소설인 〈등목취유취경원기〉와 지유류 전기소설인 〈감호야범기〉를 조합하는 가운데 서사적 의미를 구현한 작품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다. 작품 말미에서 홍생은 시해하여 현실을 떠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본질이 문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취유부벽정기〉는 천순 초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고조선의 수도인 평양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작품에 설정된 시간과 공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취유부벽정기〉에는 세 수의 삽입시가 나오는데, 세 번째 시인 기씨의 〈강정추야완월〉에서는 앞의 두 수에서와 달리 인생과 세계에 대한 비회와 선계로의 초월에 대한 지향성이 매우 강화되면서 ‘과거’의 ‘수도 평양에 국한되었던 무상감이 ‘현재’의 이 ‘세계 전체’에 대한 그것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즉 〈강정추야완월〉은 영원의 세계인 선계로의 지향을 통해 선계와 대비되는 속세를 ‘덧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바, 이 ‘덧없음’이 기씨의 과거와 홍생의 현재를 이어주면서 과거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과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을 동질적으로

38) 박희병, 「전기소설의 장르관습과 금오신화」, 『한국전기소설의 미학』(돌베개, 1997), 203-204쪽;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49-67쪽.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취유부벽정기〉는 전조에 대한 회고 의식을 촉발시키는 시공간을 설정한 〈등목취유취경원기〉와 달리, ‘영원’의 세계와 대비되는 이 세상의 ‘덧없음’을 부각시켜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서사 기법은 〈감호야범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 창작은 그의 관서 유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김시습은 〈탕유관서록후지〉에서 자신의 관서 유람이 유가적 이념이 붕괴된 세상을 ‘잊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했는데, 이는 〈취유부벽정기〉의 서두에 나오는 바 역사와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홍생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또 ‘탕유관서록후지’의 ‘탕’과 ‘취유부벽정기’의 ‘취’는 각각 ‘천순 초년’이라는 ‘시간’에 ‘평양’이라는 ‘공간’에 있는 김시습과 홍생의 정신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탕’이나 ‘취’의 상태가 아니어서는 그 같은 시공간 속에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시습의 관서 유람은 ‘감개한 일’이 벌어진 현실을 잊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가 발을 딛고 있었던 관서 지방 역시 찬위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기에, 관서 유람으로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고도 평양과 그곳의 유적지들은 그로 하여금 역사를 통해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인바, 이에 〈취유부벽정기〉는 관서 유람의 추체험적 성격을 가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취유부벽정기〉는 현실에서 벗어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는 절의를 지키지 못한 김시습의 고뇌를 표현한 작품이다.

참 고 문 헌

- 金時習, 『梅月堂全集』(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 규장각본 『剪燈新話句解』(정용수 역주, 『전등신화구해 역주』, 푸른사상, 2003).
- 조선간본 『金鰲新話』(최용철 편, 『금오신화의 판본』, 국학자료원, 2003).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김광순, 「금오신화의 연구사적 검토와 쟁점」. 『어문논총』 33, 경북어문학회, 1999, 1-31쪽.
- 김수성, 「취유부벽정기와 전등신화의 비교 연구」. 『논문집』 9, 경기공업전문학교, 1976, 47쪽.
-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17-250쪽.
-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1. 태학사, 2001.
- 문범두, 「취유부벽정기의 구조와 의미」. 『한국소설의 전개』, 문창사, 1998.
- 문복희,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난 김시습의 시세계」. 『인문과학연구』 2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75-95쪽.
- 문영오, 「금오신화에 굴절된 한의 고찰」. 『한국문학연구』 1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7, 115쪽.
- 민병수, 「한문소설의 삽입시에 대하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 박성의,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본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문리논집』 3, 고려대학교, 1958, 111-147쪽.
- 박일용,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에 나타난 애정 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동아시아 문학 속에서의 한국한문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_____,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5-30쪽.
- _____, 「취유부벽정기의 삽입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421-461쪽.
- 박태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애정 모티프 연구」.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태학사, 1996.
- 박희병, 「금오신화 창작의 연원과 배경」.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_____,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_____, 「전기소설의 장르관습과 금오신화」.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설중환, 『금오신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소인호, 「금오신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 _____, 「김시습의 금오신화」. 『한국 전기소설사 연구』, 집문당, 2005.
- 신재홍, 「금오신화와 기재기이의 전기적 성격」.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 _____,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 양상」.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 _____,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학」.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5-30쪽.
- 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윤재민, 「전기소설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352-364쪽.
- _____, 「조선 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화사연구』 15,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17-22쪽.
- _____, 「한국한문소설의 유형론」. 『민족문화연구』 3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51-154쪽.
-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 윤호진, 「취유부벽정기의 공간구조와 작가의식」. 『중국어문학』 18, 영남중국어문학회, 1990, 191-213쪽.
- 이대형, 『금오신화 연구』. 보고서, 2003.
- 이상익,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삼영사, 1983.
-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 의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 이석래,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의 모방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이승수, 「한국문학의 공간 탐색 1 평양-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와 이태준의 패강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3,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97-121쪽.
-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임치균, 「용궁부연록의 환상 체험 연구」. 『정신문화연구』 1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8-9쪽.
- 임형택, 「김시습의 사상체계와 금오신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 전성운, 「취유부벽정기의 공간성과 서사 전개」.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191-221쪽.
-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 연구』. 신아사, 1965.
- 정출현, 「고전소설의 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35-63쪽.
- 정환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지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

- 전문학회, 2002, 307-334쪽.
- _____, 「전란 소재 애정전기소설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시론」. 『초기 소설사의 형성과정과 그 저변』, 소명출판, 2005.
- 최남선, 「금오신화해제」.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 탁원정, 「고소설 속 관서·관북 지역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147-190쪽.
- 한영환,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구성비교연구』. 개문사, 1975.

국 문 요약

〈취유부벽정기〉의 주인공 홍생은 평양에서 기녀들과 유희를 즐길 때에는 역사와 현실에 무관심한 풍류남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부벽정에서 기씨와 만났을 때에는 문사(文士)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유부벽정기〉가 애정류 전기소설인 〈등목취유취경원기〉와 지우류 전기소설인 〈감호야범기〉를 조합하는 가운데 서사적 의미를 구현한 작품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다. 작품 말미에서 홍생은 시해(尸解)하여 현실을 떠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본질이 문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취유부벽정기〉는 천순(天順) 초년(初年)을 시간적 배경으로, 고조선의 수도인 평양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작품에 설정된 시간과 공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취유부벽정기〉의 세 번째 삽입시인 〈강정추야완월(江亭秋夜翫月)〉에서는 앞의 두 수에서와는 달리 ‘덧없음’의 시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덧없음’은 기씨의 과거와 홍생의 현재를 이어주면서 과거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과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을 동질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서사 기법은 〈감호야범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 창작은 그의 관서(關西) 유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김시습은 〈탕유관서록후지(宕遊關西錄後志)〉에서 자신의 관서 유람이 유가적 이념이 붕괴된 세상을 ‘잊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했는데, 이러한 그의 정신 상태는 〈취유부벽정기〉의 서두에 나오는 바 역사와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홍생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또 ‘탕유관서록후지’의 ‘탕(宕)’과 ‘취유부벽정기’의 ‘취(醉)’는 각각 ‘천순 초년’이라는 ‘시간’에 ‘평양’이라는 ‘공간’에 있는 김시습과 홍생의 정신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김시습은 ‘감개한 일’이 벌어진 현실을 잊고자 유람을 시작했지만, 그가 밭을 딛고 있었던 관서 지방 역시 찬위(篡位)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던바, 오히려 고도(古都) 평양의 유적지들은 그로 하여금 역사를 통해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취유부벽정기〉는 현실에서 벗어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는 절의(節義)를 지키지 못한 김시습의 고뇌를 표현한 작품이다.

투고일 2012. 12. 20.

심사일 2013. 1. 30.

게재 확정일 2013. 2. 27.

주제어(keyword) <취유부벽정기>(*Chwiyububyeokjeonggi*), 김시습(Gim Siseup), <등목취유취경원기>(*Deungmokchwiuchwigyeong-won-gi*), <감호야범기>(*Gamhoyabeomgi*), <탕유관서록후지>(*Tangyugwanseorokhuji*).

